광주·전남 상장사들 장사 잘했다

15개사 중 13개사 영업이익…코스닥 10곳도 경영개선

한전 지난해 매출 58조5403억…전체 실적의 대부분 차지

지난해 '한전 이전 효과'에 광주·전남지역 상장회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지역 15개사의 지난해 결산실적 분석 결과 총매출액은 66조433억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조 8271억원으로 전년보다 102.04% 늘었으며, 순이익은 10조43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6.23%나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대폭 증가는 한국전력공사의 실적에 따른 것이다. 한전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 지역 15개사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전 매출액은 58조540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2059억원이 늘었다. 영업이익은 4조425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64%, 순이익은 10조165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9조1257억원, 877%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15개사의 자산총계는 114조9654억원, 부채총계는 57조3568억원, 자본총계는 57조6085억원이다.

부채비율은 전년 말 대비 28.52%포인트 낮아진 99.56%였으나 전국 평균(76.02%)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대상기업 15개사 중 13개사가 순이익 흑자를, 2개사(금호타이어·금호산업)는 적자를 보였다.

금호타이어의 매출액은 2조3963억원으로 전년 2조7551억원보다 13.0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91억원으로 전년 2722억원보다 85.63% 감소했고, 순이익도 전년 1228억원 흑자에서 462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금호산업의 매출액은 1조532억원으로 전년 1조5227억원에 비해 0.49%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02억원으로 전년 392억원보다 48.42% 감소했고, 순이익은 전년 602억원 흑자에서 21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2개사의 경영실적도 크게 나아졌다.

총매출액은 5024억원으로 전년대비 6.83%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0억원으로 전년대비 65.47%, 순이익은 165억원으로 전년대비 45.90%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전년 말 대비 1.5%포인트 낮아진 38.25%로 전국평균(60.53%)에 비해 크게 낮았다.

대상기업 12개사 중 10개사가 순이익 흑자를, 2개사(코아크로스·남화토건)는 적자를 기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삼성 '액티브워시' 세탁기 200만대 돌파 삼성전자 모델들이 4일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출시 1년 2개월만에 글로벌 200만대 판매를 돌파한 삼성 '액티브워시' 세탁기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념해 4월 한 달간 삼성 세탁기를 특가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 대유위니아 코스닥 상장 예심 청구

냉장고 등 생산 지난해 4312억 매출…올엠 등 7곳도

대유위니아, 올엠 등 8개사가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고 한국거래소가 4일 밝혔다.

광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대유위니아는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로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312억원과 157억원이었다.

올엠은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체로 작년 매출액은 170억원, 영업이익은 49억원 규모였다.

이밖에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 장원테크, 양돈업체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 하나머스트2호기업인수목적, 아이비케이에스제2호기업인수목적 등도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 알엔투테크놀로지, 척추 임플란트 제조업체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온라인·모바일 쇼핑 '폭풍성장'

2월 거래액 4조6918억원…전년보다 각각 23%·54% 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가계가 지갑을 닫고 있지만 온라인쇼핑과 모바일쇼핑은 급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6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2월 소매판매액은 29조1806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9% 증가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조6918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2.7% 늘었다. 온라인쇼핑 중 스마트폰을 활용한 거래인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무려 54.0%가 늘어난 2조3914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소비보다 온라인·모바일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작년에도 온라인쇼핑과 모바일쇼핑은 '폭풍성장'을 거듭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은 매달 전년 동월대비 10~20%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모바일쇼핑은 40~90%대 성장을 지속해왔다. /연합뉴스

익산국토청, 국도 19곳 해빙기 시설물 정비

익산국토청(청장 하대성)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호남지역 국도정비에 나선다.

익산국토관리청은 내달 2일까지 20일간 관내 일반국도 19개 노선 총 3,559km를 대상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겨울철 반복된 동결과 융해로 인해 파손된 포장과, 낙석 산사태 우려지역 등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각종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78.97 (+5.40)	↓ 금리 (국고채 3년) 1.44% (-0.01)
↑ 코스닥 696.98 (+6.29)	↓ 환율 (USD) 1146.10원 (-8.10)

한전, SNS로 감성소통

'전기사랑 기자단' 발대…新사업 등 콘텐츠 제공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4일 한전 본사에서 SNS를 통한 국민과의 감성소통을 위한 '제3기 전기사랑 기자단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

한전 전기사랑 기자단 3기는 대학생, 일반인, 한전 내부직원 6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014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내년 3월까지 1년간 활동할 이들은 국민과 젊은이의 시각에서 한전과 국내외 에너지신산업, 에너지밸리 등 최신 스마트 트렌드를 다루고 한전의 지역상생, 해외봉사 활동과 문화, 여행 등을 발로 뛰며 취재하게 된다. 또한, 글과 사진, 웹툰, 동영상 등으로 만들어진 기자단의 콘텐츠는 한전 공식 블로그 굿모닝 켑코(KEPCO)와 SNS를 통해 제공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기자단들과 함께 전력홍보관, 재난종합상황실 등 본사 주요 시설견학과 임명장 수여, 사내외 기자단간 멘토링 등 행사가 이어졌다.

조환익 사장은 "올해 118년이 된 한전이 하는 일들과 비전에 대해 국민 분들이 모르는 게 많다"며 "올해 기자단 활동과 SNS 소통을 통해 한전을 더 가깝고 친근하게 여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전KPS 사창립 제32주년 기념식에서 최외근 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새로운 기업문화 비전을 선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KPS 제공〉

한전KPS, 창사 32주년 새 기업문화 선포

한전KPS(사장 최외근)는 4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KPS 본사에서 '사창립 제32주년 기념식'과 '새로운 기업문화 선포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한전KPS는 '도전을 지향하고 성과가 인정되는 한전KPS'라는 새로운 기업문화 비전을 선포했다.

또 한전KPS는 '혁신으로 행동하고 도전으로 성장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변화하는 한전KPS(변화기반 조성) ▲화합하는 한전KPS(조직융합 강화) ▲도전하는 한전KPS(도전적 리더십 향상) ▲성장하는 한전KPS(성과기반 조직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최외근 사장은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경영환경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창의적인 생각과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며 "고객지향의 한전KPS, 새로운 시장 영역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한전KPS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선포한 새로운 기업문화가 조직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VISION 2025'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구성원 모두의 강한 실천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